

효성, 중소기업 전문인력 빼냈다!

공정위, 경쟁기업 인력 유출 ... 중소기업 조웰 연구조직 붕괴 피해

(주)효성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을 빼내 피해를 준 혐의(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기용접기 전문기업 조웰은 자사 저항용접 컨트롤러 개발분야 직원들을 효성이 빼내 피해를 보고 있다며 8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8월23일 발표했다.

조웰은 자사 연구소와 고객지원과에 근무하던 과장 및 주임급 직원 2명이 6월23일과 25일 퇴사한 후 효성에 입사하는 등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6명이 효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조웰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특정 경쟁기업으로 전직한 점에 비추어 효성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웰의 연구조직이 붕괴했을 뿐 아니라 영업상 비밀자료와 정보 등이 넘어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효성은 조웰의 거래처들에게 조웰 생산제품을 배제하고 자사 제품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웰은 1976년 설립된 이후 아크와 저항용접기 등 용접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왔으며 2001년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순탄한 길을 걸었으나 최근 연구인력이 잇달아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웰 관계자는 “숙련된 인력이 줄줄이 경쟁기업으로 스카우트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행태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효성의 한 관계자는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3>